

“ '90년대의 세계경제 전망 ”



朴 聖 祚
(베를린대 교수)

이 자료는 지난 10월 10일 석유협회 회의실에서 행한 경제특강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註>

「東·西獨의 통합, 통일」.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동구권의 민주화바람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조와 성격을 점차 변화시키더니 마침내는 40년 이상이나 분단된 상태로 있던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동구권이 정치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면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1992년으로 예정되는 EC의 통합이 있어 더욱 그 관심의 도는 높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세변화로 동부유럽이 그토록 주목이 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90년대와 21세기의 세계시장은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자유경제협력체제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회주의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승리라기 보다는 자본주의경제의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는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폐쇄된 사회주의의 분위기에 익숙해있던 사회주의국가의 국민성은 창의성과 모험성의 결여 그리고 나태함이라는 단점을 포함하기에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정신적변화, 개혁부터 해야 한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아래서 경영과 기술이 없던 東歐를 西歐의 자본과 기술이 기다리고 있다. 공산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화시켜야 한다.

'90년대의 세계경제는 삼각경제체제로 전망할 수 있다. 日本위주의 東北아시아권, 美國과 캐나다 중심의 北美경제권,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경제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의 경제특성을 보면, 日本경제는 과점적 독점자본시장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을 기본으로 15~20여개의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전문분야에 걸쳐 경쟁하는 형태를 띤다. 예를 들면, 日本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경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계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하게 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 각회사별

경쟁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日本경제의 특징은 기초과학이 아닌 응용분야 즉, 응용을 통한 수요중심의 산업정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편 美國경제는 日本과는 달리 단일기업 또는 극소수의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초과학분야에 치중하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술을 비롯한 국방관련분야에서도 우수한 정보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응용, 개발분야는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日本이나 유럽의 침투를 막을 수 없어 美國자체시장의 쇠퇴, 소외현상마저 겪고 있는 실정이다.

日本, 美國과는 또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이 유럽의 경제이다. 특히 獨逸경제는 한마디로 중소기업 위주의 기계공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산학협동을 근간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는 철저한 기술이전과 발전을 이룩하는데 상당한 몫을 담당했다. 또한 눈앞으로 다가온 EC의 통합으로 인해 이들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한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東歐의 유희노동력과 자원이 西歐선진국의 자본, 경영과 손잡고 나아가게 되면 美國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성장을 추월하는 야생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인의 3대 특성, 조건이라면 모험성, 창의성, 그리고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파괴하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선도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성이 요구된다. 또한 모험심 못지 않게 필요한 것이 창의성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열성과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빠져서는 안될 것중의 하나가 사회윤리, 도덕이다. 개인의 이익뿐이 아니라 국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감각을 지녀야 참된 기업인이라 하겠다. '90년대 기업인은 "머리속에서 금덩어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기업인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중동사태로 사실상 제3차 석유위기가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제는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에너지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수출위주의 정책을 지속해온 우리경제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국제경제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내수가 아닌 국제시장을 목표로 가동해온 국내경제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렸으나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지난 '80년대에 우리는 순탄한 경제성장기도를 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물적자원은 없지만 수준높은 인적자원을 무기로 급성장을 해왔다. 때문에 일련의 산업구조 재정비기간을 갖지 못했다. 부실기업정리나 기업의 산업정책지원등 필요한 점점시기를 놓쳤기에 노사간의 문제, 투기등 부정적 측면이 발생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날로 생산성이 낮아지며 고가의 상품으로 수입품이 범람하는 상황이 되었다. 예전의 근면성이 잃어지고 안일주의가 만연해지는 사회분위기는 이번 중동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생산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높기에 기술혁신에 대한 재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유럽이 단일시장화 되어가면서 우리의 수출시장은 날로 좁아지고 장벽은 높아져만 간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물결은 그간의 안일한 정책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통상외교상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 범국민차원에서 총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책입안자들을 타하기전에 국민들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상황판단을 좀더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東歐를 비롯한 中國, 蘇聯 등의 공산권에 살고 있다. 이들 공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동이 따라야겠다. 즉 이들에 대한 개척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지조건은 타국에 비해 상당히 우위에 있다 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3천km반경내에 소련, 中國을 비롯한 다인구국가가 위치해 있고, 대만, 일본, 홍콩등의 동북아시아경제

권이 근접해 있다. '90년대 공산권개혁시대에 있어 우리의 위치는 절대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계속성장의 돌파구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인력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덕택에 우리 국민의 인적자원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에 있다. 하지만 이들의 수요, 공급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점차 평준화되어가는 학력수준은 일자리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해외로 눈돌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구별하지 말고 모두가 다목적 숙련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4천년 이상이나 축적된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역사의 교훈, 문화의 슬기를 이어 받도록 해야 한다. 산업화 이후 점차 단일화, 획일화되어가는 우리 고유의 맛과 멋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모든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마저도. 그러다보니 모든 사람이 모든것이 서울로만 향한다. 이래선 안된다. 각지방의 가락과 문화가 그대로 전수되고 빛을 발하는 사회이어야 한다. 중앙집권체제의 맹점중의 하나가 국가정책에 바라는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 잃어가는 것이 많은데도 애써 찾으려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국가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녔으면서도 지방고유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주목해야겠다. “지방화와 국제화” 이것이 '90년대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에게는 의식전환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산학협동을 본받고 유희시설을 활용하는 겸소함과 합리성을 배워야 한다. 대학의 고급인력, 두뇌를 기업의 자본이 활용하도록 한다. 선진국의 노하우를 읽기 위해 뛰어야 한다. 日本, 美國의 시장은 정보에 있어 상당히 폐쇄적이지만 유럽쪽은 아직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지식, 정보를 입수하여 연구, 개발분야를 확장시켜야 한다. 또한 자원이 빈약한 만큼 대체기술에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환경을 활용해야겠는데 인공섬과 같은 환경의 억지조정은 또 다른것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므로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될수 있는 한 현재의 시설, 상황을 이용하도록 한다. 일례로 울릉도와 같은 섬을 국제해양기술연구센터와 같은 기지로 만들어 경쟁전(Pre-Competitive)의 상태에서 선진기술을 습득,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시장을 겨냥하던 '80년대는 이미 어제의 일이 되었다. 이제는 국제동향의 흐름을 좀더 신속, 정확하게 해석해서 경제성장의 파고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서안내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0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펴냄 -